



저소득층 본인부담 癌치료비 2005년 부터 전액 정부지원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암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 하위 15%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기획예산처에 보냈다”며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지원 범위 등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되는 암 종류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의 대상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등 5개 암. 흡연과 관련이 있는 폐암은 조기에 발견되더라도 완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저소득층 암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치료비를 내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암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치료비는 1조 1,000억원, 환자 본인 부담액은 2,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의 암 치료비는 5,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동아일보 2004. 8. 15)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에 223억 투입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연말까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에 총 22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비로는 총 87억 7천만원을 책정,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센터 3개소에 각각 7억원 이내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임상시험센터 2개소에각 10억원 이내, 의료정보기술개발사업에 24억원, 바이오신약 지원에 23억원,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 지원에 10억원 이내의 지원액을 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5일까지 관련분야 과제를 접수, 11월까지 평가·선정 작업을 거쳐 연말에 연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4. 8. 20)

장기 흡연, 만성신부전 위험

장기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신장기능이 손상되는 만성신부전(CRF)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역학·생물통계학과와 엘리자베스 페르블라드 교수는 미국신장병학회지(JASN) 최신호에 이같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헬스데이 뉴스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페르블라드 교수는 18~74세의 만성신부전 환자(남성은 혈청 크레아티닌 3.4mg/dl이상, 여성은 2.8mg/dl이상)와 신장기능이 정상인 사람 998명을 대상으로 흡연 등 생활습관을 조사한 결과 담배를 하루 한 갑이상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성신부전 위험이 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담배를 40년이상 피운 사람은 만성신부전 위험이 45%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페르블라드 교수는 말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환산했을 때 스웨덴의 경우 전체 만성신부전 중 약 9%가 흡연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성신부전이란 신장기능이 서서히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만성신부전은 진행속도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신장기능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2004. 7. 31)

유방암 환자 가족 여성, 유방암 발생 위험 9배 높아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우리나라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간호대 이정렬 교수팀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유방암 판정을 받은 여성 271명과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확인된 여성 310명을 직접 면담하여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위험 인자는 6가지로 ▲가족력(어머니나 자매 중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 ▲유방질환 경험 ▲모유 수유 경험 없음 ▲자녀 출산 2명 이하 ▲매주 한번 이상 육류 섭취 ▲40~59세의 나이 등이 꼽혔다.

그중 유방암 발생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족력'으로, 가족력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9배 더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지금껏 학계에 보고된 유방암 14가지 위험 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 나머지 8가지 위험 요인, 즉 흡연, 음주, 비만, 경구용 피임약 복용, 낙태, 초산 연령, 초경 연령, 호르몬제 복용 등은 유방암 발생 위험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6가지 인자의 상대적 위험도를 점수로 표시, 발병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일수록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이정렬 교수는 "각 항목 해당 여부를 확인해 합당한 점수가 70점을 넘으면 발병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라며 "이런 여성들에게 집중적으로 유방암 예방 교육과 검진을 실시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유방암 발병을 줄이거나, 혹 발병하더라도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4. 8. 17)

토마토 주스, 혈전 위험 감소시켜

토마토 주스가 혈소판 응집을 억제, 혈전 위험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뉴캐슬 대학 당뇨병영양학 교수 매노하 가그 박사는 '미국의학협회 저널'(JAMA)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혈소판 응집이 높게 마련인 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헬스데이뉴스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혈액성분 중 하나인 혈소판은 상처가 발생했을 때 출혈을 막기 위해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혈액응고가 지나치면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염증성 표지(pro-inflammatory marker)를 많이 가지고 있어 혈소판 응집이 높아지게 된다.

가그 박사는 43~82세의 제2형(성인)당뇨병 환자 20명(남성 14명, 여성 6명)을 두그룹으로 나누어 3주간 매일 토마토 주스 또는 토마토 맛이 나는 음료 250ml씩 마시게 하고 시험 전후 혈액샘플을 채취해 혈소판 응집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모두 과거 혈전병력이 없었고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등 혈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시험 후 토마토 주스 그룹은 시험 전보다 혈소판 응집이 크게 감소된 데 비해 비교그룹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그 박사는 토마토 주스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 수없지만 토마토 씨 들레에 있는 젤리와 같은 노랑 액체에서 추출한 P3라는 물질이 혈소판 응고를 차단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 대학 의과대학의 스텐트 웨이스 박사는 이 결과가 흡연자, 장거리 항공여행자 같은 혈전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토마토 주스에는 설탕이 많지는 않지만 얼마간 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웨이스 박사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 8. 19)